금주의 법구-〈법구경〉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말라.
다만 내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보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6월 1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59호 2017년 8월 9일 수요일

대세된 '出寫信心' '주목' Photo포교

불교계, 시니어 사진 강좌·동호회 '활발'

5060세대의 취미생활로 사진촬영이 각광받는 가운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찰들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사찰 내 사진촬영 문화 확산에 맞춰 에티켓 보급에도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가의 장비로 인해 전문 활동으로 평가받았던 사진촬영은 스마트폰과 DSLR의 보급으로 인해 일반적인 취미활동으로 변모했다. 특히 최근에는 5060세대의 취미로 손꼽히고 있다.

G마켓이 2016년 공개한 스포츠 · 레저 · 사진 · 미술 · 악기 등 취미 품목의 3년간 판매량 조사결과를 보면 50대 이상의 구매가 최대 4배 증가했는데, 특히 사진기의 50대 이상의 구매가 23%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 행사마다 카메라를 든 불자들을 쉽게 찾아 본지 오래다. 불자들을 위해 각 사찰들은 사진 강좌와 동아리 구축에 나서고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지난해 9월부터 사진촬영 강좌를 열고 있다. 김현성 사진가를 강사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 열리는 이 강좌는 인기절정이다. 지난해 진행된 3개월 과정의 초급반에는 30명 정원에 55명이 몰렸다. 이어 마련된 중급반에도 30명 정원에 42명이 신청했으며 정기적으로 출사(사진 촬영을 위한 외부활동)를 진행 중에 있다. 최근 연말 전시전을 목표로 개설된 고급반에도 30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다.

봉은사 관계자는 "비용 부담이 있어도 수강생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5060세대의 비중이 높다"며 "사찰 입장에서 보면 신도들의 취미 · 문화생활을 사찰에서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봉사조직으로 활동을 유도해 사찰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 경우에는 강진형 사진가를 강사로 매주 월요일 사진촬영 강좌를 열고 있다. 특히 국제선센터는 2015년 1월 스님 4명이 포함된 사진동호회 '인연'을 구성했다. 동호회 회원 21명이 매월 2회 출사 및 양천불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진촬영 봉사도 진행하고 있다.

강석훈 국제선센터 주임은 "봉축행사를 비롯해 연합회 소속 사찰들의 행사 홍보도 진행해 사찰들의 호응이 높다. 최근에는 사찰 달력 제작에도 동호회 회원들의 사진을 보시받아 사용했다"고 말했다.

사진촬영을 취미로 하는 불자들은 사찰에서의 자유롭지 못한 촬영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일부 사진가들의 무분별한 사진 촬영으로 사찰에서 이를 금지하는 곳이 적지 않다. 광주불교연합회가 지난해 3월 구성한 사진문화기획단(지도법사 무등)은 불자 사진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연합회 사찰의 사전 협조를 얻고,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문화기획단 강민협 회원은 "사찰 동호회의 경우 다른 사찰에서 촬영을 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연합회 차원에서 구성되어 협조가 원할하다"며 "초기에는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있었지만 기획단 활동을 하며 모두 불자가 됐다. 사찰 촬영을 하다보면 불교문화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신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5060세대 '사진촬영' 취미
봉은사 사진 강좌 정원초과
국제선센터 동호회 설립돼
광주지역 사찰들 연합 활동

사찰 촬영하며 신심 증장해
몰지각 행태에 촬영금지도
"기본 에티켓 보급 필요해야"

사진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불교계 사진촬영 인구만큼 사찰 내 에티켓 보급에도 각 사찰들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성 한국불교사진협회 협회장은 "사진강좌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활동은 포교의 또 다른 기회"라면서도 "취미활동은 타인의 피해가 없게 하며 유지해야 한다. 특히 사찰은 신행공간인 만큼 사진촬영도 중요하지만 기본예절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사찰 사진촬영 에티켓을 신도들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무더위 잊은 연꽃 삼매경 태고종 신촌 봉원사에는 8월 5일부터 시작된 연꽃축제 기간 동안 만개한 연꽃을 보려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연꽃을 환희심 넘치게 바라보는 불자 모녀의 모습에서는 한여름의 무더위도 느껴지지 않는다.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태고종 새 집행부 인사추천위 구성

8월 2일 춘천서 종단 발전 · 화합 연찬회

전국 종무원장 중심으로 구성
오는 15일까지 3배수로 추천
"인재 적재적소 배치에 최선"

태고종이 신임 집행부 구성을 위해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은 8월 2일 춘천 베어스호텔 소양홀에서 '태고종 종단발전과 종도화합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종회의장 설운 스님, 호법원장 지현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주요 소임자, 종회의원,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을 비롯해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동룡 춘천시장,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연찬회 참가자들은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인사추천위원회에는 시도교구종무원장 29명과 선암사 · 봉원사 · 백련사 · 청련사 · 법륜사 주지 5명 모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종무원장들은 차기 집행부 인사를 3배수로 오는 8월 15일까지 추천한다.

이에 대해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당선자인 편백운 스님은 "좋은 총무원장의 요소는 자기가 일을 잘 하기보다는 좋은 인재를 발굴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라며 "각 시도교구종무원장 스님들은 숙고해서 종단 발전을 위한 인재들을 3배수로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종단 발전을 위한 당부들도 이어졌다.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 부채 등 태고종은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새로운 집행부는 다시 뛰는 태고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시도교구종무원장 등 종도들의 원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저 역시 차기 집행부에 최대한 협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종무원장협의회장 도광 스님은 "차기 집행부는 종단 운영을 주관이 아닌 객관적이며 상식적으로 해주길 바란다"면서 "또한 내부 문제를 외부 쟁송으로 비하하지 말고,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연찬회 참가자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춘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진정한 수행자에겐 대오견성이 해제라"

2000여 운수납자 정유년 하안거 해제

불기2561년 정유년 하안거 해제가 8월 6일 전국 조계종 100여개 선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 대중현황을 정리한 '정유년 하안거 선사 방함록'에 따르면 올해는 전국 99개 선원(총림8 · 비구선원57 · 비구니선원34)서 총 2,053명(총림276 · 비구1,092 · 비구니685)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안거 해제에 앞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8월 3일 운수납자들의 수행을 독려하는 해제법어를 내렸다. 스님은 "다시금 심기일전해 마음속의 모든 반연을 다 쉬어버리고, 오로지 화두와 씨름하고 씨름해서 한 생각이 간단없이 지속되게끔 해야 할 것"이라며 "한 생각이 지속되는 이 삼매에 들게 되면 천 사람이면 천 사람이 다 진리의 눈을 뜨게 되어 있음이라"고 당부했다.

〈종정 · 방장 해제 법어 A7〉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159호 INDEX

시방세계 A5
염불만일회 20주년 염불정진대회



미국서 날아온 수행편지 B1~2
잔까를로 크로세티(베링거 잉겔하임 이사)



오대산 월정사 부설 불교전문교육기관

탄허강숙(呑虛講塾) 2017년도 2학기 수강생 모집 공고

2017년도 2학기(9월 4일 개강) 탄허강숙에서는 선(禪)과 불교사, 인문학의 고전인『벽암록』·『노자 도덕경』·『삼국유사』·『대혜 서장』을 강의합니다. 각 텍스트의 사상과 내용은 물론, 시대적 배경, 그리고 한문의 구조와 용례, 훈고 등에 대해서도 강의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집니다.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공자는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였습니다. '공부' '학문' '탐구'는 인간의 탐구이고 지성(知性)과의 만남입니다. 배움의 기쁨을 함께 나눌 학인들을 기다립니다.

1 2017년도 2학기 강의일정 및 장소
- 일시 : 9월 4일(월) ~ 12월 28일(목) 저녁 7시 ~ 9시 (10월 첫 주는 연휴로 휴강)
- 방식 : 한문 원전 중심 강독 및 내용 해설 (초심자도 수강 가능)
- 장소 :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634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5호선 광화문역 5분 거리)

2 2017년 2학기 개설 강좌

	월	화	수	목
강좌 및 원전명	벽암록 1학기에 이어 2학기 20칙부터 강의	노자 도덕경 2학기 신규개설 강좌	삼국유사 2학기 신규개설 강좌	서장(書狀)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연속 강의
강 사	석지현 벽암록, 종용록, 선시감상사전 완역자	성태용 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노자 도덕경, 장자, 주역 강의	정병삼 교수 숙명여대 교수, 한국사, 불교사, 화엄 전공	이상하 교수 한국고전번역원 교수

3 지원서 제출 및 등록
- 접수 기간 : 2017년 7월 18일(화) ~ 8월 30일(수)
- 접수 방법 : 민족사 홈페이지(www.minjoksa.org)에서 지원서 다운받은 후 이메일(minjoksabook@naver.com)로 제출
- 수 강 료 : 과목당 1학기(4개월), 20만원(일시불).
  ※ 대학원생은 50% 할인
  ※ 전과목 수강할 경우 50만원(4과목 4개월 일시불)
- 수강 인원 : 과목당 25~30명(연령, 자격 제한 없음). ※ 선착순 마감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3502-04-145908 (예금주: 윤재승) 수강료 입금시 수강자의 이름(수강자와 동일한 이름) 표시 요망. 문자 요망. 교재비는 별도(3만원 이하). 교재는 당일 배포.

4 안내 및 문의
- 자세한 사항은 TEL 02-732-2403~4, H·P 010-5226-2149

5 강사 프로필
- 석지현(벽암록 강의) : 동국대 졸업. 인도 유학. 선어록《벽암록》·《종용록》《禪詩감상사전》,《우파니샤드》 등 다수의 번역이 있음.
- 성태용 교수(노자도덕경) : 서울대 철학과 졸업. 건국대 철학과 교수, 정년퇴임(2017년). 건국대 철학과 명예 교수. EBS에서 '주역과 21세기'라는 제목으로 48회 주역 강의하며 인문학 대중화에 공헌. 노자(도덕경)와 장자(莊子) 강의. 한국철학회 회장. 재가불교단체 '우리는 선우' 공동 대표 역임.
- 정병삼 교수(삼국유사 강의) : 서울대 사학과 졸업. 간송미술관 수석 연구원. 현재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한국사, 불교사 전공.
  ※ 주요 관심분야 : 화엄학, 불교문화. '불교미술로 보는 삼국유사', '삼국유사와 신라불교' 등을 주제로 강연. ※ 저서 :《일연一然과 삼국유사》,《의상 화엄사상 연구》,《찬란한 우리 문화의 꽃 진경문화》,《중국화엄사상사》(공역) 등 다수.
- 이상하 교수(서장 강의) : 고려대학교 박사. 한국고전번역원(전 민추) 교수.《십지경론》·《십송률》·《한암 · 탄허 선사 서간문》·《경허집》·《월사집》 등 다수의 번역이 있음.

